

카페거리 동명동?



복합문화공간 눈에 띄네

음악가·작가들 위한 '벨라 151'

아마추어도 부담없이 무대 서고 관객들 다양한 공연 접하는 곳

'코로나 북병'에 공연 끊기자 커피머신 들고 카페 겸업

재즈·클래식...매일 콘서트 연극도 무대에 올리고 싶어요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벨라 151'에서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멋진 카페, 음식점 등이 자리한 광주 동명동은 핫플레이스지만 문화 공간은 거의 없어 아쉬웠다. 최근 공연, 전시 등을 만날 수 있는 소복문화공간을 꾸미는 작은 공간이 동명동에 문을 열었다. '벨라 151'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소규모 공연을 열고, 대학생 등 아마추어 연주자, 작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다.

건물 지하에 있는 '벨라 151'은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쳤을 법한 장소지만, 일단 들어가면 아지트같은 느낌의 아늑한 공간이 펼쳐진다.

지난 2019년 12월 문을 연 이곳은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이자 미니콘서트를 열 수 있는 공연장이다. 카페 안쪽에는 무대가 마련되었으며, 드럼과 피아노 등 악기도 구비되어 음료를 마시며 무대를 즐길 수 있다.

'벨라151'을 운영중인 이영숙(52·사진)씨는 현재 광주시립합창단 부지휘자로 활동중인 남편의 지원으로 문을 열게 됐다.

이씨는 "작년에 남편의 제자가 출전하는 아마추어 콩쿨에 따라갔다 지역 아마추어 음악가들을 위한 무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러던 중 지인이 운영하던 카페를 정리한다는 말을 듣고 인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처음엔 '카페벨라'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음료를 파는 '카페'로 운영하기 보다는 아름다운 공연이 좀 더 많이 열릴지 바라는 마음에서 '아름다운'이란 의미의 '벨라(Bella)'와 이곳 주소 광주시 동구 동계



천로 151에서 '151'을 따와 '벨라 151'로 명칭을 바꾸었다.

"지역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부담없이 설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큰 무대는 비용도 많이 들고 부담감이 크잖아요. 애초

가들에게 무대를 제공해 주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도 음악은 오래 해온 남편이 힘을 실어준 덕분에 좀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벨라151'을 본격적으로 운영해보기도 전에 코로나 19가 들이닥쳤다. 막 오픈하고 나서는 대관공연이 활발히 진행됐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공연자와 관객들의 발길이 끊겼다. 이씨는 급히 커피머신도 들고 음료와 디저트 메뉴를 재정비해 판매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커피머신도 없었죠. 그저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만 운영하려고 생각했거든요. 코로나 19라는 북병을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죠. 뜻하지 않게 음료와 빵, 쿠키 등을 팔게 됐지만 그 덕분에 손님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1월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

년생들 대상으로 한 'Hallow Santa' 행사를 시작으로 2월에는 전남대 의과대학 피아노동아리 연주회가 열렸다. 8월에는 플루티스트 김지연과 피아니스트 김예진이 '사랑으로부터'를 주제로 공연을 선보였고, 10월에는 피아니스트 임리아가 영화 속 피아노음악을 들려주는 하우스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밖에도 광주-전남가곡부르기 공연과 신방과 학생들이 광주의 장소들을 미디어 아트로 선보인 '광장-첫번째 프로젝트 동명동'도 열렸다.

"유럽에는 하루종일 음악이 흐르는 공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광주에도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요일별로 클래식, 재즈 등을 주제로 한 콘서트를 매일 열고 싶어요. 차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편하게 찾아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인 에곤실레의 그림도 붙여있다. 그녀는 앞으로 지역 작가들을 초대해 조그마한 전시도 열 생각이다. 또 기회가 된다면 연극도 올리고 싶다.

"사실 결혼하면서 40살에는 공연장과 음악감상실 등이 함께 있는 음악빌딩을 짓자고 약속했었어요. 50살이 넘었는데 꿈을 못이뤘죠. 그런데 이렇게 벨라를 통해 그 꿈에 한발짝 더 다가간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관객이 무대와 함께 호흡하는 하우스 콘서트, 이곳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글·사진=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색·선·면의 '바람 속으로'

신수정전 27일까지 나인갤러리

서양화가 신수정 작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색'이다. 비스듬한듯, 또 다른 미묘한 색감의 변화는 화면에 다채로운 표정을 입히며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위로, 관조, 사색, 운기, 정열 등.

7년만에 개인전을 여는 신수정 작가가 이번에는 콜라주를 더한 작품으로 미술 애호가들을 만난다. 오는 27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나인갤러리에서 20여점의 신작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의 제목은 '바람 속으로 (in the wind)'다.

사실, 지역 화단에서 추상작업을 꾸준히 해 나가는 작가는 손에 짙은 무늬다. 그런 점에서 작품 세계를 넓혀가며 추상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신 작가의 행보는 의미가 있다.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건 콜라주 작업이다. 곁에 코팅이 된 종이 팔레트에 다양한 색깔을 입히고 일일이 잘라 화면에 붙여가며 만들어낸 조형미는 색과 선, 면이 어우러지면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한다. 수묵 등 꽃과 열매 등이 구체적 모습으로 형상화되기 보다는 하나의 이미지로 변용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유분방하게 연출한 콜라주 작업이 리듬감을 부여하는데, 역시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인 다채로운 '색조'와 어우러지면서 흥미로운 장면들을 만들어낸다. 기존 '관조 시리즈'를 통해 중첩된 색들이 전하는 즐거움을 경험한 신 작가는 색을 쓰는 건 훈련되지 않으면 그 오묘한 감각을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 수없는 반복의 시간을 통해 의도와 우연이 만들어내는 '결정적 순간'을 포착해내는 작업이고, 결국 오랜 시간 매달릴수록 마음에 드는 색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전시는 입구에 걸린 '관조' 시리즈 한 점에서 시작해 작품이 변해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강렬하고 도전적인 색감의 작품을 지나, 결국 차분한 화면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통해 이번 작품들도 예전 작업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작들이 그녀에게는 '엄마가 전해준 선물' 같은 것이기도 하다. 신 작가는 올해 양림동 작업실에서 두문불출했다. 코로나 19 때문이기도 했지만 엄마와의 이별을 겪으며 더욱 작품에만 몰입했다. 엄마의 사랑과 수고에 대해 감사하고 헤아려 보는 시간을 지나며 그녀는 작업에 매진했다. 계속되는 노작(勞作)의 과정은 노동에 대한 가치를 알게했고, 고감한 시도도 가능케 했다.

조선대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신 작가는 서울·전주 등에서 13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뉴욕아트페어 등 다양한 해외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색채학회, 에보그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유화적 풍경'

자연·세상 만물 담은 획을 굵다

'예술공간 집' 21일까지 정재석 서예전

'예술공간 집'은 지난해부터 매년 다양한 시각 예술분야 작가를 한 명씩 선정해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기획전전을 열고 있다. 지난해에는 첫 주자로 타피스트리과 일러스트 작업을 진행하는 윤연우 작가를 선정했다.

두 번째 추천 작가전에는 서예가 후산 정재석 작가를 초청했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전통예술인 서예를 다시금 조명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의미로 기획됐다.

고(故) 학정 이돈홍 선생의 제자로 20여년간 서예가의 길을 걸어온 정 작가는 전통에 대한 고집스런 연구와 현대적 변용에 대한 열린 마음도 함께 볼 수 있는 작품들을 통해 서예의 옛 멋과 새 멋을 함께 선보인다.

전시에는 행초서를 비롯한 전각 등 23점의 다양한 작품이 나왔다. 그는 작품을 통해 단순히 하나의 글자만이 아닌, 다양한 이미지와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하나의 글자는 추상화가 되기도 한다.

전남대 경영학부를 졸업한 정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광주시미술대전, 전남도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아행'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산 행사부문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